

**오리 워치를 위해 하나뿐인 유니크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트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노 래드(Tribute to Fifty Fathoms No Rad)**

2001년 설립된 근위축증을 위한 모나코 협회(Monaco Association against Muscular Dystrophy)를 계속해서 후원해온 블랑팡이 올해도 오리 워치 경매와 함께 한다. 메종은 고귀한 명분을 기리는 이 자선 경매를 위해 세상 유일무이한 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노 래드(Tribute Fifty Fathoms No Rad) 모델을 헌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코닉한 블랑팡의 역사적인 타이밍 장비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타임피스는 시계 애호가들이 선망하는 또 하나의 희소한 “No Rad” 컬렉터 피스로 등극할 것이다. 이 유니크 피스는 2021년 11월 6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매의 최고가 입찰자 품에 안기게 된다.

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노 래드 워치는 60년대 중반 탄생해 독일 해군 전투 잠수 부대에 채택된 블랑팡의 잠수 장비를 재해석했다. 블랑팡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방사능 물질인 라듐 발광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no radiations”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별한 기호가 시계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컬렉터들이 가장 선망하는 피프티 패덤즈 모델 중 하나가 되었다.

오리 워치를 위해 제작한 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노 래드는 매트한 블랙 다이얼 위에 원형 도트와 직사각 마크, 12시 방향의 다이아몬드 모양 마크에 이르기까지 기하학적 느낌의 전통적인 아워 마커들을 놓았다. 챗터 링, 바늘, 베젤 위 눈금은 오렌지 컬러 슈퍼-루미노바를 입고 있다. 이 특별한 피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톱톡 튀는 컬러로 2021년 오리 워치 에디션을 상징하는 컬러를 반영했다. 오리지널 옐로 & 레드 컬러를 각각 오렌지와 옐로로 대체한 “no radiations” 로고가 여전히 다이얼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초창기 피프티 패덤즈 모델의 전형적인 눈금을 올린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이 최신 컬렉션의 특징인 사파이어 인서트를 탑재한 점도 눈길을 끈다. 돔 형태의 측면 모습이 이미 글라스박스 타입의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강조한 입체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30bar(약 300m) 방수 가능한 스틸 케이스는 리미티드 에디션 피프티 패덤즈 워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이즈인 40.3mm로 선보인다. 심장에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추고 4일 파워리저브 가능한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인 블랑팡 칼리버 1154을 탑재했다. 두 개의 배럴을 와인딩하는 솔리드 골드 로터에는 특별히 “Only Watch”를 새겨넣었다. 블랙 NAC 코팅, 최초의 피프티 패덤즈 등 역사적인 모델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테일인 카트리지 형태로 낸 구멍이 이 시계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이는 원래 무브먼트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로터를 유연하게 하고자 채택한 디테일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시계에는 견고함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당시 다이버들에게 매우 사랑받은 “트로픽(Tropic)” 타입 러버 소재 스트랩을 매치했다.